「경영사연구」 제33집 제1호(통권 85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8. 2. 28, pp. 47~68.

논문접수일 : 2017.11.07
최종수정일 : 2018.02.19
게재확정일 : 2018.02.28

조선 초기 태종의 경영 리더십 분석 :
ser-M 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여현철*·엄재근**

요 약

본 연구는 태종 이방원에 대하여 경영 리더십 관점에서 ser-M 메커니즘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존 연구에 비해 보다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다. ser-M 메커니즘 모델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그는 조선창업 및 집권기동안 정치, 법제도, 행정, 군사, 외교 등에서 다양한 업적을 달성하였다. 정치 메커니즘 측면에서 주체 이방원은 강한 비전과 창의적 발상으로 새로운 환경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적극적으로 성과를 창조하였다. 이는 환경창조 메커니즘으로서 순열은 SER로 볼 수 있다. 국가나 기업 경영자는 난세에 위기를 돌파함에 있어서 위기관리경영, 속도경영, 공격경영, 카리스마 경영, 지속가능경영 등을 벤치마킹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태종, 이방원, 경영 리더십, ser-M 메커니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yeo2004@naver.com, 제1저자.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01027154370@naver.com, 교신저자.

Ⅰ. 머리말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는 국가 간 힘의 우위를 목표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급성장한 경제적 힘을 기반으로 센카쿠 열도,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등 주변국들과 충돌하고 있다. 아베와 같은 일본 지도자들은 일본 사회의 극우화를 주도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역사적 수정주의 노선으로 한중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정책기조로 핵무기 개발을 통한 핵무력과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핵 방어용 전략자산으로 전개된 미국산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 핵위협에 대한 군사적 옵션 검토, 한국에 대한 FTA 재협상 등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안보, 경제, 외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등 강한 리더십의 부상이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어 한국은 총체적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이 측근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탄핵 및 파면되었고 보궐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한 거칠고 강한 리더들이 충돌하고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정권 교체 및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듯이 한반도의 중세, 일제 강점기, 건국(建國)시기 등 변동기의 국제정세 역시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리더십 혹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민수(2011)는 장보고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노혜경과 노태협(2012)은 조선시대의 개성상인을 통하여 상생과 성장을 살펴보았고, 양성국과 김봉현(2012)은 김만덕의 기업가 정신을 연구하였다.

난세에는 많은 영웅이 탄생하였으며 강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격변의 시기에 조선 창업의 1등 공신이며 조선 500년 역사의 국가 초석을 다진 조선 태종 이방원의 리더십을 재조명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많은 역사학자, 정치학자들이 이방원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정치사에 집중되어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견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er-M 메커니즘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국가경영자로서 이방원과 그를 둘러싼 환경, 자원, 정치권력 메커니즘, 성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메커니즘 이론

국가 경영권 혹은 권력창출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해 분석하기 전에 먼저 메커니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왜냐하면 ser-M 메커니즘 이론이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양한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ser-M 측면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이러한 메커니즘 분석은 경영 프로세스의 미시적 분석에서 벗어나, 거시적 분석으로의 시도이다. 또한 문제를 프로세스 자체에서 찾기 보다는 프로세스를 둘러싸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에서 근원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이다. 미시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프로세스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간과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적 경영을 위한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으로 메커니즘 기반관점의 ser-M 모델에 의한 조선의 이방원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의 이방원이라는 경영자가 국가 경영권을 쟁취하는 과정(창업), 경영권을 공고히 유지하는 과정(경영활동), 경영권을 계승하는 과정(경영권 이양)에 대하여 메커니즘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전체의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메커니즘의 구성요소인 주체(Subject),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작동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이방원이 국가 경영권을 어떤 전략으로 쟁취, 유지, 계승하는 지 요인별로 분석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지도자와 시대 상황을 통하여 살펴보는 이 논문은 국가 경영자의 정치 메커니즘 연구를 위한,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다.

Andrews(1971) 이후 기업의 성공을 설명하는 전략경영 이론은 대체로 주체, 환경, 자원의 관점에서 발전되어 왔다(구자원·이윤철 2007). 상기한 주체, 환경, 자원에 대한 연구를 메커니즘 관점과 통합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동태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한 것이 ser-M 프레임워크이다(조동성·서울대 메커니즘연구회 2006). ser-M 프레임워크에서는 주체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개념을 선택, 학습, 조정 메커니즘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메커니즘의 구성요소인 주체, 환경, 자원의 변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조선 이방원의 국가 경영권 창출, 국가 경영 활동 등 국가 경영전략에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주체, 환경, 자원 및 메커니즘에 대한 관점들을 ser-M에서는 통합적 시각에서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동태적 역량확보를 위한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설명한다. 즉 기업마다 보유한 자원이 다르고 처해있는 환경차이가 있는 만큼

기업이 보유한 메커니즘 또한 다르게 작용할 수 있고 하나의 메커니즘은 하위 메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다(조동성·서울대 메커니즘연구회 2006).

2. 태종 이방원 관련 선행 연구

기존 태종 이방원에 관한 연구는 왕자의 난 발생 원인과 성격, 그 난과 관련하여 책봉된 공신들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 태종의 집권과 그 정권의 성격에 관한 연구(이희관 1988) 등 정치사 분야의 연구가 많은 편이다. 또한 태종기의 정치기구, 국정운영, 통치체제, 제도와 관련된 연구도 많은데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태종대의 유교적 왕권강화 과정에서 나타난 각 시기별 연구(한충희 1999), 조선초기의 제도 혹은 제도화에 대한 연구(한충희 1998), 권력 정치에 관한 연구(박홍규·방상근 2006), 태종의 즉위과정에서 내세운 명분에 관한 연구(남지대 2014), 태종의 정치리더십을 조망해 보는 연구(갈상돈 2011) 등이 있었다.

이처럼 태종 이방원과 태종대에 관련한 기존 연구 경향은 역사학자 혹은 정치학자를 중심으로 정권의 성격, 정치세력, 통치체제, 왕권강화 과정 등 정치사 분야의 연구에 집중된 편이다.

Ⅲ. 연구방법

이동현(1996)은 'ser-M' 패러다임이 복합적인 전략경영 현상 즉 기업의 비정상적 수익창출을 설명하기 위한 동태적 이론(dynamic theory of strategy)의 한 갈래라고 주장한다. 즉 특정한 이론이 전략경영 분야의 동태적인 이론이 되기 위한 내용, 과정, 시간 차원에서의 특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차원에서는 근본 요인에 대한 관심을 과정차원에서는 근본 요인들 간의 관계, 시간 차원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근본 요인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의미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특정현상을 유발시키는가에 관한 설명방식을 지칭한다(이동현 1996).

〈표 1〉 메커니즘 기반관점 유형 및 사례[1)]

메커니즘 유형	세부 유형	내용
창조형 메커니즘 (SER/SRE)	환경창조 메커니즘	주체가 강한 비전과 창의적 발상으로 새로운 환경을 적극창조
	자원창조 메커니즘	주체가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조직내부에 새로운 자원을 창출
혁신형 메커니즘 (RSE/ESR)	환경혁신 메커니즘	기존 자원을 주어진 조건으로 주체가 환경을 적극적으로 혁신하는 유형
	자원혁신 메커니즘	기존 환경을 주어진 조건으로 주체가 자원을 적극적으로 혁신
적응형 메커니즘 (ERS/RES)	환경적응 메커니즘	주어진 환경 하에 기존 자원을 유지하는 환경적응
	자원적응 메커니즘	기존자원을 조건으로 하여 주체가 소극적으로 환경을 활용하는 자원 적응

이처럼 메커니즘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메커니즘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표 1〉처럼 순열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권력창출, 국가 경영권 확보, 국가경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메커니즘의 다양성은 앞서 말한 주체, 환경, 자원이 각각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combination), 어떤 순서(permutation)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메커니즘이 달라진다. 메커니즘 기반의 조합(combination)관점에서는 단위 메커니즘의 형성 조건으로 주체, 환경, 자원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기업마다 주체의 특성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며 가진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주체, 환경, 자원을 달리하면 창출되는 메커니즘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메커니즘 요소인 주체, 환경, 자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달리 하면 또 다른 메커니즘이 생성되는 것이다. 즉 어느 요인이 가장 먼저 변화했으며 그 다음으로 변화한 요인이 무엇이며 가장 나중에 변화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각 메커니즘의 순열(permutation)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순서의 차이에 의해 기업들은 동일한 속성을 가진 요소를 활용하더라도 제각기 다른 메커니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순서의 차이를 활용한 결과 형성되는 6가지 순열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조동성 2014).

1) 조동성은(2014)은 창조형, 혁신형, 적응형 등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으며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기업의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Ⅳ. 태종 이방원의 경영 리더십 연구

주체, 환경, 자원 요인은 메커니즘 요인과 과정적 혹은 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우선 주체 변수는 성취욕구, 업무경험, 위험선호도, 행동특성 등이 구성요인이 될 수 있다. 환경 변수는 국제환경, 국내외의 경쟁강도, 경쟁자수 등 대내외 요인이 될 것이다. 자원 변인은 인적 자원(신하, 가족, 종친 등), 물적자원, 이념자원, 군사적 자원 등이 될 것이며 성과는 제도적 성과, 왕위계승 성과 등이 가능할 것이다.

1. 주체(subject)의 분석

주체의 요소로는 성취욕구, 창업동기, 위험감수 성향, 실패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같은 행위적 특성, 지식, 경험, 경력, 연령, 성별, 학력, 심리적 특성, 비전 수립 역량 등이 있다(박영배·윤창석 2001; Van de Ven et al. 1984; 이장우·김동재·김현정 2005). 주체 이방원의 경우 정치가로서 조선 창업의 파트너(1등공신)이면서 동시에 국가경영자(CEO)로서 통치를 하였다. 이방원이라는 인물의 등장에 적합한 국내외의 복잡하고 혼란한 정세 속에서 그는 이에 많은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1) 주체의 선천적·경험적 요소

이방원은 고려의 무장 이성계의 아들로 태어났다. 5남으로 태어난 이방원은 떠오르는 영웅의 아들이었지만 자신보다 뛰어난 형들을 경쟁상대로 삼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경쟁환경에서 자랐다. 16세 나이에(고려 우왕 9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엘리트 코스인 공양왕의 비서인 밀직사 대언(代言), 예문관 제학으로 근무하는 등 조선의 임금 중 유일하게 고려왕조에서 신하의 관직을 경험한 관료 겸 신진사대부(유학자)였다. 1388년에는 목은 이색을 수행하여 서장관으로 1394년에는 명나라 고황제가 태조의 친아들을 입조시키라고 명했을 때 명에 다녀왔기 때문에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도 밝았다(오인환 2003; 이한우 2005; 강문식 외 2014). 특히 1394년 장갈매 사건 해명차 명나라를 방문했을 때 정안군(이방원)은 연왕의 관부인 연경에서 연왕을 만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만남은 뒷날 조선에 유익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다(이이화 2015). 국가 경영권(왕권) 쟁취를 위한 경쟁과 관련하여 1차 왕자의 난(1398년, 태조 7년), 2차 왕자의 난(1400년, 정종 2년)을 주도하였다. 이를 통해 젊은 나이에 혁명과 정권장악과정에서 권력이 무엇인가를 체득하고, 창업경험 및 국가 수성의 철학도 마련하였다.

〈표 2〉 주체 변수의 구성항목과 특징

구성 요소	연구자 (연도)	변수(세부 구성항목)	주요 특징
주체	박영배·윤창석(2001)	성취욕구	창업 욕구
		위험감수성향	위험 선호도; 무인기질(과단성과 돌파력) - 성격, 성향, 추진력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 등 심리적 특성	인내심 강함 (신중, 의심많음, 치밀함)
		창업동기	고려귀족 (지방호족, 권문세족)과의 이질감, 고려 경영권 취약
		실패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위기관리 능력 탁월 - 순발력, 상황판단력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같은 행위적 특성	강력한 실천력, 의사결정능력
		연령, 성별, 학력	16세, 남성, 문과 급제자 (지적능력 탁월)
		창업 관련 산업과 같은 경력 특성	이성계의 창업 파트너 - 창업의 1등 공신
	Van de Ven et al (1984)	창업자의 지식	경서, 중국고전 역사 공부, 유학자
		창업자의 경험	고려관직(비서, 사신)경험, 정권창출 경험 등
		학력(전공), 이전기업 근무 경력	과거공부, 관직경력 등
		인지된 성공 의지	창업의지, 경영권 획득의지, 수성의지
		비전 수립 역량	왕권중심 국가, 지속가능한 국가 비전
		사업 아이디어의 발굴 능력	왕권강화 및 백성위한 제도 정비, 유교국가 건설
	이장우, 김동재, 김현정(2005)	이전 직장 근무 연수 이전 및 직책	관직 경험 등
		위험 선호도	높은 위험 감수
		행동 양식	생사를 건 승부수

이방원은 자신의 경험과 학습효과를 통하여 권력이 산재되어 있던 태조·정종대에 국가 권위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이희관 1988).

군사적 경험과 관련하여 우왕 3년(1377) 왜구가 조선을 침범했을 때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을 데리고 출전하여 그들을 섬멸했다. 이방원의 나이 11세 무렵이다. 이 같은 기록은 세종때 저술된 '고려사'에 있는데 진위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여러 전장에도 이성계가 이방원을 데리고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이한우 2005).

태종은 역사서와 국가경영과 관련된 경서(經書)를 열심히 탐독하였다. 역사서에는 현실 정치에 응용가능한 사례들이, 경서에는 유교 국가 조선의 통치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이었다(이덕일 2010). 이처럼 유가경전 및 사서에 대한 지식에서도 태종은 당대 으뜸이었으며 경연에서 신하들이 태종의 예리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신동준 2007). 이런 점에서 태종은 중국역사에 정통한 인물로 신권(臣權)의 견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왕권을 다지고자 선진 외국의 다양한 선례를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주체의 비전수립 역량

유교국가 조선왕조는 리더십 함양의 경전공부와 인간존중의 도덕의식, 도(道)·불(佛)에 대응할 정도로 이론체계를 갖춘 고려말 신유학의 확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역사에서 보듯이 무력(武力)의 힘은 혁명국가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생활문화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국가경영이념(통치이념)이 중요하다. 국가경영의 원초적 차원에서 의미로서 유가의 핵심덕목인 충(忠), 효(孝), 의(義)의 가치관과 도덕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다짐이며, 이의 성공을 위해서 통치자의 유교적 지도력이 선행되어야 한다(조남욱 2008).

이런 점에서 쿠데타를 통하여 명분과 정통성에 하자가 있는 이방원의 왕위와 왕권은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태종은 끝없이 왕권강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태조가 아들의 등극을 인정하지 않거나, 태조가 조사의의 난에 동조하는 모양새 등 즉위 초부터 정통성에 위협을 받았다. 이방원은 정면돌파를 선택한다. 즉 대내외 상황을 감안하여 제왕이 통치의 주체가 되어 강력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성리학을 추구하는 왕도대신 법가가 주장하는 패도통치술의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이후, 왕실이 비로소 안정된 후 왕권우위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된다(신동준 2007).

이처럼 불법적 방법으로 국가 경영권을 장악한 태종을 성공한 군주로 볼 수 있다면 그 원동력은 그의 자기성찰 능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교지식인으로서 태종의 자기 성찰 능력은 정치에 있어서 비도덕성의 한계를 자각하고 통치의 새로운 도덕적 기

반을 찾음으로서 불완전한 시작이라는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도록 만들었다(갈상돈 2011).

3) 주체의 위기관리 능력

위기관리란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여 전략을 세워 준비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함으로서 위기를 극복하여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관리능력은 위험대처능력, 위험감수성향, 위험선호도와 유사한 개념이며 카리스마적 리더십 같은 행동적 상황에서의 행위로 표출되기도 한다.

권력 향배에 예민한 이방원은 위기를 감지하고 대처하는 위기관리능력이 탁월했으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할 때이다. 회군 소식을 듣고 이방원은 즉시 생모 한씨와 둘째 어머니 강씨가 있는 곳으로 가서 고향인 함흥으로 피신시킨다. 고려 우왕과 최영의 보복을 피하고자 빠르게 판단하고 즉각 행동하였다. 둘째, 이성계가 사냥을 나갔다가 낙마했을 때이다. 고려 공양왕 4년 이성계가 낙마했을 때 이성계를 신속하게 개성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정몽주의 반격을 사전에 피할 수 있었다. 셋째, 정도전 일파에 대한 권력 남용 견제의 성격이 강한 1차 왕자의 난 때이다(1398년 태조 7년). 정도전 세력이 왕자들에게 궁에 입궐하라고 통고한 것은 그 무렵이었으며 부인 민씨의 연락을 받고 발길을 되돌아 나온 이방원은 민씨가 사병해산때 감추어 두었던 병장기를 들고 정도전 일파를 기습한다. 정도전은 방심하다가 기습을 당한 형국이다. 당시 최고의 실권자였던 정도전은 지략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이처럼 지략의 우월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상대의 허를 치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하륜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방원이 선제공격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정도전에게 반격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방원의 운명과 조선왕조의 진로가 바뀐 사례이다. 권력쟁취를 위해 방해 세력 중 누구를 먼저 제거해야 그 세력이 힘을 잃을지 직감적으로 인지하고 행동하였다. 이방원은 정도전만 제거하면 계모 강비와 이복 왕자 형제가 치명상을 받을 것이고 연로하여 병상에 누워 있는 이성계까지 자신의 영향권에 들어올 것을 간파한 것이다. 즉 부친의 날개를 꺾은 형국이다. 넷째, 2차 왕자의 난(1400년 정종 2년)이 발생했을 때이다. 이방원이 국가 경영권을 차지하기 전 마지막 사건으로 정종의 대를 이을 후사가 없었기에 넷째형 방간이 다섯째 방원의 눈치를 보면서 경쟁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때 방간이 선수를 쳐서 박포와 함께 군사를 일으켰지만 강력한 조직력과 전투력을 갖춘 방원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패배하였다(오인환 2003; 석산 2013; 이덕일 2010).

2. 환경(Environment)

환경과 관련한 분석방법으로 산업조직론적 관점, 조직생태론적 관점 등이 있다(Poter 1980; 이장우·김동재·김현정 2005; 이장우·장수덕 2001).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 환경과 관련한 구성 변수로는 산업내 경쟁강도의 영향에 기초한 국가간 경쟁의식, 신규

〈표 3〉 환경 변수의 구성항목과 주요 특징

구성요소	연구자(연도)	변수(세부 구성항목)	주요 특징
환경	Poter (1980)	산업(지역)내 경쟁강도의 영향에 기초한 국가간 경쟁의식	주변국가간 경쟁의식, 지역 세력간 경쟁의식 - 국제정세 등
		신규 국가의 출현의 위협	신흥국가 명나라의 부상
		중국의 정책과 지원	명나라의 정책, 지원 - 우호적 국제환경의 결과물
		일본의 정책과 지원	막부시대, 혼란기
		대체품의 위협	형제(동복, 이복 왕자들), 부왕(이성계), 정종 등이 대체품
		공급자 교섭력	대외적 협상력; 외부환경 안정; 평화추구, 사대주의적 노선택함
		구매자 교섭력	-
		구조적 관성	조선초기 혼란기, 쿠데타로 인한 정당성 약함, 적장자 아닌 위치(국가경영권 취약) 공신들의 지분요구, 부친의 비협조, 왕권강화의 필요성 인식 등
	이장우, 김동재, 김현정(2005) ; 이장우, 장수덕(2001)	경쟁정도	경영권 탈취(조선창업), 경영권 확보 경쟁(왕자의 난), 신권(정도전)과 왕권(이방원)주도 경쟁
		경쟁자수	제한 경쟁(왕자간)
		마케팅활동 변화	부친과 형(정종), 종친에 지원요청, 아군 확보 노력
		정부 지원 및 보조	종친의 지원, 제도적 지원 (왕권 강화 제도) 등
		정보 경영 및 기술 지원	정적 및 주변인 감시
		환경의 변화와 경쟁강도	국내외 환경 : 경쟁심한 격변기

국가의 출현의 위협, 중국 및 일본의 정책과 지원, 대체품의 위협, 공급자 교섭력, 구매자 교섭력, 구조적 관성 등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환경의 변화와 경쟁강도, 경쟁자수, 경쟁정도 등 국내 지역의 정치적 환경도 변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 환경의 변화와 경쟁강도, 경쟁자수

이방원이 역성혁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방식의 과격함 때문에 이성계의 눈 밖에 나게 되고 조선 건국 이후에는 배제 당하게 된다. 이후 7년간 권력의 주변부에 소외되어 있었지만 결국 1차 왕자의 난을 통해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게 된다.

국제 환경은 명이 부상하고 있었으며 내부 환경으로는 고려말, 조선초 격변기에 권력투쟁이 치열하였다. 신생조직일수록 경영권 승계자의 선정 원칙이 중요하다. 정도전 등 공신들은 평화 시에는 적자, 난세에는 공이 있는 자를 주장하였는데 이 경우, 이방과나 이방원이 유리하다. 그러나 강비(이성계의 둘째부인)가 전세를 뒤집어서 방석(이방원의 이복동생)을 세자책봉하자 한씨(이성계의 첫째부인)의 자제들이 반발한다. 국가경영권 승계의 문제는 이복형제간 자리다툼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말, 선초 정치사회적 격변기에는 권력 중심부에서 이념노선을 갖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인물 간에는 동지도 경쟁자도 혹은 적들도 있을 것이다. 조선 창업기 대표적 경쟁자는 정도전과 이방원으로서 사병혁파, 권력투쟁 과정에서 대립한다. 역성혁명 진행기간에서의 정도전과 이방원은 긴밀한 동지였으나 역성혁명 성공 후 점차 적대적 관계로 바뀐다. 정도전은 재상중심 국가운영을 이방원은 국왕중심 국가운영을 주장하는 등 국가경영의 주인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다. 또한 정도전은 역성혁명 후 최고권력자가 되었고 이방원은 52명의 공신에도 제외되는 등 권력에서 소외된다. 이후 왕자들의 사병혁파문제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정도전이 제거되고 이방원이 권력을 장악한다. 만약 이 시기에 이방원이 군사력(시위패)을 잃었다면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도전을 살해한 후 이방원은 정권을 장악하고 태조는 2남 정종에게 왕위를 이양한 후 물러난다. 정종 대의 실권은 이방원이 좌우했으며 이후 이방원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한 넷째형 이방간을 무력 제압하고 정종의 양위를 받아(1400년 11월) 왕위에 오른다(강문식 외 2014).

2) 신생국가들의 출현

14세기 후반 중국과 한국에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였다. 중국에서는 홍건적 출신 주원장이 1368년(공민왕 17)에 명나라를 건국하고 중원을 차지하였으며 몽골족을 북쪽으로 몰아내었다(북원). 20년 후(1388년, 우왕 14) 고려는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가 역성혁명에 성공해 조선을 건국(1392년)한다. 14세기 후반~15세기 전반기에는 조선, 명나라 간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된다. 조선 창업 시기 대명관계는 고려 공민왕대 이후 진행된 대명관계의 연장선에서의 외교관계 형식으로 명과 조선의 조공관계가 지속된다. 다만 명의 적극적인 요동진출 정책과 고려 내부의 정치 변동이 맞물리면서 상황이 변동하였다. 즉 명나라가 과거 원이 고려로부터 강탈한 철령(요동)의 주인이라 주장하고 고려는 강력 반발하여 최영 중심으로 요동정벌 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고려 우왕과 최영은 조민수, 이성계를 사령관으로 출정시켰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은 유배당했다. 이후 명의 홍무 연호를 사용하고 대명관계는 안정되어 이성계 일파가 고려의 내정을 개혁하고 혁명추진에 전념할 수 있는 유리한 국제 환경이 조성되었다. 고려의 문하시중 이성계가 정부 대신들의 추대를 받아 국왕에 즉위하니(1392년 7월) 475년 역사의 고려왕조는 무너지고 조선이 개국하였다(강문식 외 2014). 이처럼 조선 개국은 한때 세계 대제국의 위용을 자랑했던 원의 몰락, 명의 발흥과 불가분의 국제 관계를 맺고 있다. 원과 고려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만큼 원, 명 교체기가 없었다면 조선의 개국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개국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대격변이 빚어낸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 개국에는 외부 환경 요인 뿐 아니라 내부 인적 세력 등 자원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신동준 2007).

조선전기는 북쪽 국경지대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외부의 군사적 압력이 덜하였다. 동시에 남쪽 왜로부터의 위협도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조선전기의 대외관계는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로 이시기에 중국의 앞선 유교문화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자극으로 조선자체의 문화를 대규모로 정리해 낼 수 있었다. 즉 조선왕조가 중국과 일본의 힘과 직접 맞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유 공간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과 이런 조선전기의 환경이 문화적 발전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조선전기 대외관계는 환경적 산물이다(정두희 2000).

3) 마케팅활동 변화, 정부 지원

정변을 통해 국가 경영권을 쟁취한 태종으로서 왕권의 정당성이 취약하고 자신의 입지강화를 위해 친족, 종친의 지원이 필요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마케팅활동을 하였다. 태종은 조사의의 난이 발생한 이후에도 정통성의 상징인 태조에 대해 공손한 태도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정치적 대안이 될 수도 있는 정종도 적극 옹호하며, 형 방간, 친척 이거이 등 자신의 친인척 범주에 속한 종친들을 감싸는 정치적 전략을 선택한다.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이방원은 공법을 내세워 숙청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사정(私情)을 보일 수도 있는데 미묘한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법이라는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사정(私情)이라는 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신하를 제압하고 종친을 옹호

하는 마케팅전략을 구사한다. 태종이 숙청과정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법을 적극 주장하거나(至公의 정치), 둘째, 공법과 사정을 병행하거나 셋째, 공법과 충돌함에도 왕실과 종친에 대하여 사정을 보이는 등(방간 부자 및 친인척 이거이 부자가 태종의 사정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음) 사안에 따라 다양한 대응전략을 보여주었다. 왕권강화를 위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데 태종은 이를 사정(私情)이라고 언급하였다. 공법이 아닌 사정이라는 신하들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이방원은 왕실과 종친편에서 사정을 활용하였기에 종친이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법의 원칙적 적용보다는 정치적 결과를 계산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태종은 정변과 주자학의 제약조건 속에서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고 계승시키는데 성공한다(박홍규·이종두 2007).

3. 자원(Resource)

〈표 4〉 자원 변수의 구성항목과 적용

구성 요소	연구자 (연도)	변수(세부 구성항목)	주요 특징
자원	Kazanjian (1988); 구자원, 이윤철(2009)	자본금확보	창업 자산(부친의 역성혁명에 동참), 사병, 인적자원
		능력있는 경영관리자 및 사원확보	신하(하륜, 조준, 이무, 권근, 황희, 맹사성), 지원세력
		판매망의 확보	현대기업의 특징; 해당없음
		제품생산 연구 및 기술력 확보	현대기업의 특징; 해당없음
		필요장비 확보	현대기업의 특징; 해당없음
	Daft (1983)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수립, 실행위한 모든 자산	왕권 강화 전략
	이춘우 (2004)	기업가 관련 요인	창업가, 지속가능 국가경영 후계자
		경영진의 특성 요인	신진 세력들이 중간 리더의 역할; 공신들(하륜, 이무, 권근, 이첨 등이 국가경영에 참여)

구성 요소	연구자 (연도)	변수(세부 구성항목)	주요 특징
		기술적 자원	현대기업의 특징; 해당없음
		재무적 자원	군사력(병권장악)
		자원 기초 역량	군사력 자원이 기초 역량
		전략적 제휴, 파트너십의 선택 및 계약기간	다양한 세력(종친, 비개국공신 세력 등)과 협력
		마케팅 전문성	현대기업의 특징; 해당없음

자원은 인적자원, 자본금, 전략적 제휴선택, 경영진의 특성, 군사적 자원(Daft 1983; Kazanjian 1988; 구자원·이윤철 2009; 이춘우 2004) 요인 등이 있다. 조선의 개국에는 외부 환경 요인 뿐만 아니라 내부 자원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중세시대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내부 자원으로는 주자학으로 무장한 정도전, 정몽주, 하륜 등의 신진 사대부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주자학을 사상적 이념으로 받아 들였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정치적 입장은 달랐다. 따라서 이들의 시대 해석 및 난국을 타개하는 처방은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정치 사상사 측면에서 조선 개국은 바로 이 세 사람을 대표로 하는 신흥 사대부들이 엮어 낸 노선 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도전, 정몽주는 이방원 세력에 의해 제거되었으며 하륜만 살아남아 후일 이방원의 핵심 인재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의 창업과정, 이방원의 국가경영 시스템에서 주체 요인, 환경 요인에 이어 능력이 있는 경영 관리자, 유능한 사원확보, 재무적 자원, 전략적 제휴 등 자원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1) 인력, 경영진의 특성 요인, 전략적 제휴

인적자원은 크게 국가경영자 자체 요인 이외에 창업에 기여한 전략적 제휴 파트너, 핵심 경영진, 왕족 관련(종친, 부친 등) 인물이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겠다. 신진 세력들은 이방원의 정권 창출 및 운영에 있어 초기에는 국가경영권 확보에 중간 리더로서 참여하였다. 공신들(하륜, 이무, 조준, 권근, 이첨 등)은 국가경영에 참여하여 국가이념 수립, 왕권강화시책 마련, 유교국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정비, 인사, 외교 등 여러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였고 창업 및 지속가능한 국가경영의 기틀 마련에 힘을 보탰다. 이성계의 핵심 인재가 정도전이었다면 이방원의 핵심 인재는 하륜이다. 정도전과 하륜의 경우 지략의 우월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었지만 각기 철학적 배경, 시대 해석, 조선통치권력 운용방식(혹은 통치체제)에 관한 견해가 서로 달랐다. 특히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적 배경에서 정도전은 맹자의 왕도정치를 중시하여, 신권국

가를 만들고자 하였고 하륜은 순자의 패도정치를 수용하여, 강력한 왕권 국가를 지향하며 이방원과 의기투합하였다(석산 2013). 현대 기업의 경우 재무자원, 기술자원, 판매망, 마케팅 전문성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세사회의 경우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핵심인재(하륜)와 다양한 지원세력(무장, 외척 세력 등)이 1차, 2차 왕자의 난을 도왔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가 상황에 따라 파트너십 기간이 정리되었다.

2) 문무 자원의 확보

방간의 난(정종 2년 1400년)에서 볼 수 있듯이 태종은 이미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조사의의 난 발생에서부터 진압까지 진행과정은 태종의 왕권과 병권이 강력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난이 있었음에도 정국역시 안정되어 있었다(박홍규·방상근 2006). 잠저기 시절 이방원은 무인이었던 부친의 영향을 받아 그 자신 또한 무인 기질이 다분했으며 형제중 유일하게 문과에 급제할 정도로 학문적 소양과 지적 능력이 우수하였다. 더구나 여말 전쟁영웅이었던 부친의 측근들과 친인척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준의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었다. 즉 이방원은 권력획득을 위한 외적, 내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갈상돈 2011). 오늘날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리더의 역량, 인적자원, 재무자원, 전략수립 및 실행을 위한 자원기초역량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15세기의 지배층은 유교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백성에게도 권농정책, 진휼제도, 신문고 제도, 소원제도(訴冤制度) 등을 통하여 군주를 비롯한 지배층의 온정적 배려에 기대를 갖도록 함으로서 지배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민본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수 있었다(김훈식 1989). 태종은 무력을 동원한 숙청도 했지만 자신의 권력과 왕가의 안위와 무관한 일에 있어서는 관대했고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다. 이러한 통치의 성격변화는 민무구·민무질 형제 제거 직후인 태종 10년(1410년)에 유신의 교화(惟新之化) 선포를 통해 발현되기 시작한다. 즉 태종의 정치적 정당성은 항상 성리학의 질서에 기초하고 있었다(박홍규·이세형 2006). 태종 집권기에 등장한 문치적인 시스템은 언관제도, 경연제도, 직소제도 등이며 이는 공론정치와 관련하여 의미를 갖고 있다(박홍규·이세형 2006). 이처럼 이방원에게 강력한 군사적 자원과 성리학으로 무장한 유학자로서 백성을 위한 민본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인 문치적 자원 등 문무자원이 겸비되어 있었다.

4. 성과(Performance)

경영의 주체가 기업이 보유한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둘러싼 환경에 맞게

선택하고 기업내부에 학습을 통해 확산하고 기업의 내부 및 외부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태종대의 경영성과는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정권 창출·운영·유지·계승 등과 관련된 정치, 행정, 경제, 군사, 외교, 법제도, 이념적 성과 등 왕조 안정, 부국강병, 백성의 편익을 위한 긍정적 업적이 성과로 거론될 수 있으며 기존의 여러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표 5〉로 제시하고자 한다. 반면 부정적인 성과로는 당대 및 향후 조선 사회를 위축시킨 악법을 들 수 있다.

〈표 5〉 태종대의 업적과 특징

구성 요소	결과	세부 항목	특징
성과	긍정적	정권창출, 유지, 계승	전쟁 없이 국가경영권 획득(창업), 왕권확보, 평화적 이양
		인구수	양인 확대정책 : 5백~6백만명
		군사적 업적	사병보유; 군사력 확보, 왕권강화; 사병혁파
		경제적 업적	경제력 안정, 부국
		제도, 이념적 업적	행정시스템(6조 직계제 등)개선 등
과오	부정적	손실	서얼금고법; 인적 자원 제한

태종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군주였다. 조선왕조의 창업기틀을 탄탄한 반석에 올린 수성의 공적, 권력의 정상에 있을 때 미련 없이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어 후계구도를 정리한 점이 큰 성과이다. 조선 초기 정치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태종의 권력이양 작업은 양녕의 폐세자, 충녕의 세자 책봉, 네번의 전위파동, 군사권은 이양유보, 심온 숙청 과정으로 종결된다. 만약 태종의 정치가 세종에게 권력이양 되지 않았다면 그의 정치리더십(성공적 후계자 선정, 권력이양)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다(오인환 2003; 이이화 2015; 이희관 1988).

5. 태종 이방원의 ser-M 전략

그동안 많은 역사학자, 정치학자들이 이방원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정치사적인 부분에 집중된 점이 있으며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견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학 이론에 근거한 메커니즘 기반 관점에서 ser-M 메커니즘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체(subject),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 성과(Performance), 메커니즘(Mechanism)을 다음과 같이 ser-M으로 분석하였다. 주체 이방원은 16세의 젊은 나이에 문과 급제한 천재형 인물로서 무인으로 활동하였으나 문무를 겸비하였다. 문과급제자로서 경서, 중국 역사를 공부하는 등 지식도 풍부하였다. 고려 왕조에서 밀직사 대언, 예문관 제학을 지냈으며 명사신, 왕자의 난 주도 등 정치, 행정, 외교, 군사적 경험을 두루 섭렵한 인물이다. 5남으로서 왕이 되기에 불리한 위치였지만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정몽주를 격살하고, 정도전을 제거하는 등 스스로 환경을 창조하여 국가경영자가 되었다. 난세에는 위기대응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방원은 순발력, 상황 판단력, 강력한 실천력, 의사결정능력이 뛰어났기에 국가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왕권강화로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국가초석을 다진 후 조선의 르네상스를 연 세종에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였다. 즉 문치시대 의 비전을 제시하고 조선을 지속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였다, 창업자의 파트너 겸 수성의 경영자인 태종은 뛰어난 통솔력과 용인술, 순발력, 임기웅변으로 위기관리경영, 인간불신경영, 인재경영, 시스템경영, 카리스마 경영, 지속가능경영을 창조해낸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환경을 분석하는데 있어 Poter(1980)의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의 모델을 이용하였다. 산업(지역)내 경쟁강도의 영향에 기초한 국가간 경쟁의식과 지역 세력간 경쟁의식의 경우 원명 교체기, 북방에서는 여진의 출몰, 남방에서는 왜구의 약탈이 있었으나 조선창업 과정에서 국제정세는 유리한 편이었다. 신규 국가 출현의 위협 측면에서 명나라가 부상하고 조선이 건국하였다. 중국의 정책과 지원에서는 사대(事大)국인 명으로부터 고명과 인신을 받음으로서 강대국의 후광 효과를 보았고 명과의 안정적 관계가 조선 창업에 우호적 환경이 되었다. 일본과의 정책과 지원의 경우 막부시대 혼란기를 겪지만 교린(交隣)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동, 철, 유황 등 물품 무역을 하였고 예외적으로 대마도 정벌을 단행한 사례가 있다. 여진 역시 교린 정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대체품의 위협은 왕자들(이복, 동복형제), 부왕(태조), 정종 등이 경쟁자로서 대체품이 되겠으나 형제들(방석, 방번, 방간 등)을 제거하고 조사의의 난(이성계 개입)을 진압하고 정종을 관리하여 스스로 국가경영자가 되었고 왕권강화를 통하여 보위를 잘 유지하였다. 구조적 관성의 측면은 조선 초기 혼란기, 쿠데타로 인한 정당성 취약, 적장자가 아닌 위치(경영권 취약), 공신들의 지분 차지 욕구(사병보유 등), 부친의 비협조 등이 있었으나 사병을 혁파하고 왕권안정에 위협적인 인물을 숙청하면서 국가 경영권을 안정시켰다. 국가 경영자가 되고자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집권 명분이 취약하였다. 국가 경영자로서 집권한 이후 즉 유신의 교화 이후 부국강병,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공론정치 시도, 신문고 제도 운영, 저화법, 청계천 건설 등 유교국가의 성리학적 지도자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의 개국 및 이방원의 경영권 확보에는 외부 환경 요인 뿐 아니라 내부의 인적 세력 등 다양한 자원도 크게 작용했다. 창업기에 핵심 인력인 신진 사대부들은 주자학으로 무장한 정도전, 정몽주, 하륜 등이었지만 핵심 인력 하륜만이 이방원의 편에 서서 최종 승자가 되었다. 이외에도 비개국 공신 및 무장세력, 종친 세력 등이 이방원의 인적 자원이었으며 전략적 제휴 파트너였다. 조선 창업 및 태종기에 성과로는 정치 행정적 성과, 법제도 성과 등이 있다. 메커니즘 측면에서 이방원은 주체가 강한 비전과 창의적 발상으로 새로운 환경을 적극 창조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자신이 군주가 되기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창조한 환경창조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V. 맺는 말 : 성과와 과제

1. 성과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중국의 강한 리더십의 부상, 북한의 핵위협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강한 리더, 강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안보, 외교, 경제, 정치 등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가 경영자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런 점에서 혼란기에 국가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국력을 신장한 태종을 통하여 제왕의 리더십, 기업가 정신, 통치술 등 기업의 경영자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차별점 혹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ser-M 모델은 대부분 기업 경영의 분석에 이용되었지만 여기에서는 국가경영, 정치 메커니즘, 조선의 군주에 적용한 첫 시도이다. 둘째, 이방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에 집중된 연구가 많았다. 즉 그동안의 연구는 주체의 특성(리더의 자질)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었지만 ser-M 모델은 주체의 리더십이 역사적 환경과 주체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자원간의 메커니즘 관계에서 해석하는 융합적 차원의 리더십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조선초기와 현대의 기업조직은 역사적 환경과 자원의 형태에서 다른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시스템, 권력의 특성, 인간의 본성 등 본질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난세에 국가경영권을 쟁취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도록 반석에 올려놓은 조선의 국가경영자 태종 이방원 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리더십과 경영전략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위기관리경영, 시스템경영, 지속가능경영 등이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2. 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경영과 기업경영의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국가는 공공복지, 국제평화 질서동참 등 공공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정치권력, 군사력, 공권력 등 파워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은 그러한 파워를 보유하지 않는다. 둘째, 중세와 현대 사회의 자원요인은 경제력, 기술력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자원요인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즉 중세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원은 인적자원(노동력), 군사자원(군사력)이 대부분이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기술, 지식, 마케팅 역량 등 보다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이 있다. 셋째, 주체, 환경, 자원 변수가 개별적으로 있지만 이방원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분석하다보니 주체를 둘러싼 환경 및 자원을 중심으로 분석된 점이 있다. 상기 한계점은 곧 가능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ser-M 모델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군주 등 국가 경영자 및 정치 메커니즘에 적용,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리더십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강문식·김범·문중양·박진호·송지원·염정섭·오상학·장지연·문사철(편저), (2014), 「15세기, 조선의 때 이른 절정」, 민음사.

갈상돈(2011), "마키아벨리적 시각에서 본 태종의 정치리더십", 「한국정치학회보」, 45(41), 165-195.

구자원·이윤철(2007), "기업 성장단계 연구에 있어 변수의 사용빈도 및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종단적 연구 : SER-M 프레임워크을 활용한 생산성요인 도출을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21, 131-171.

구자원·이윤철(2009), "기업 성장단계별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주체, 환경, 자원, 메커니즘 요인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8(4), 991~1025.

김훈식(1989), "15세기의 민본이데올로기와 그 변화", 「역사와 현실」, 1, 183-205.

남지대(2014), "조선 태종의 즉위과정과 내세운 명분", 「역사와 담론」, 69, 39-68.

노혜경·노태협(2012), "조선 후기 개성상인의 경쟁과 상생", 「경영사학」, 27(2), 127-156.

박영배·윤창석(2001), "벤처기업 경영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벤처경영연구」, 4(1), 3-34.

박홍규·방상근(2006), "태종 이방원의 권력 정치 : 양권의 정치술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9(3), 3-31.

박홍규·이세형(2006), "태종과 공론정치 : '유신의 교화", 「한국정치학회보」, 40(3), 5-29.

박홍규·이종두(2007), "정치가 태종의 사정(私情)과 왕권", 「정치사상연구」, 13(1), 7-30.

석산(2013), 「조선왕조 실록에서 배우는 리더의 품격」, 북오션.

신동준(2007), 「조선의 왕과 신하, 부국강병을 논하다」, 살림.

양성국·김봉현(2012),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경영사학」, 27(2), 235-258.

오인환(2003), 「조선왕조에서 배우는 위기관리의 리더십」, 열린 책들.

이동현(1996), 「기업전략 및 산업정책에 대한 ser-M 패러다임의 적용」,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덕일(2010), 「조선왕을 말하다」, 역사의 아침.

이민수(2011), "장보고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 「경영사학」, 26(1), 59-91.

이이화(2015), 「한국사 이야기, 조선의 건국」, 한길사.

이장우·김동재·김현정(2005), “전략변화에 관한 종단적 연구 : 한국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8(2), 27-53.

이장우·장수덕(2001),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사조직연구」, 9(2), 59-92.

이춘우(2004), “벤처기업 핵심경영자원의 개념적 모델과 연구과제 : 자원기초이론 및 벤처경영자원 선행 문헌 리뷰를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33-69.

이한우(2005), 「태종, 조선의 길을 열다」, 서울 : 해냄.

이희관(1988), “조선초 태종의 집권과 그 정권의 성격”, 「역사학보」, 120, 1-39.

정두희(2000), “조선전기사 연구의 쟁점”, 「서강인문논총」, 3-29.

조남욱(2008), “조선조 유교국가의 형성 기반”, 「유교사상연구」, 34, 177-200.

조동성·서울대 메커니즘 연구회(2006), 「제4의 전략 패러다임 M경영」, 한스미디어.

조동성(2014), 「메커니즘 기반 관점 : 통합적 경영을 위한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 서울 : 서울경제경영.

한충희(1998), “잠저기 태종연구”, 「대구사학」, 56, 61-102.

한충희(1999), “상왕기(세종 즉위, 1418-세종 4, 1422) 태종연구”, 「대구사학」, 58, 91- 118.

Andrews, K.(1971), “The Concept of Corporate Strategy”, Homewood: Richard D. Irwin.

Daft, R, L.(1983), “Organization theory and design”, New York : West.

Kazanjian, Robert K.(1988), “Relation of dominant Problems to stages growth in technology-based new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 257-279.

Porter, M. E.(1980), “Competitive Strategy”, New York.

Van de Ven, Roger Hudson, Dean M. Schroeder(1984), “Designing new business startups : 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and ec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Management,* 10, 87-107.

The Analysis of Leadership of Taejong in the early Joseon: Focused on ser-M Model

Hyun-Chul Yeo*·Jae-Gun Eom**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aejong, Lee Bang-won through ser-M mechanism model from the viewpoint of managerial leadership and examines it with a more macro and integrated viewpoint.

He accomplished various achievements in politics, law, administration, military, diplomacy, etc. on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the Joseon Dynasty period. He as the subject of the political mechanism actively created the new environment by utilizing his resources as much as possible with strong vision and creative ideas. This is an environment creation mechanism and permutation can be seen as SER. The country or corporate executives will be able to benchmark crisis management, speed management, aggressive management, charismatic management, and sustainable management for breaking the crisis.

〈Key Words〉 Taejong, Lee Bang-won, Business leadership, ser-M mechanism.

*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 Adjunct Professor,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 Technologies.